

美 선거인단 대선 투표

트럼프 승리에 마침표

트럼프 306 vs 힐러리 232명

‘배신 투표’ 결과 영향 없을 것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 선거가 19일(현지시간) 50개 주(州) 주도과 수도 워싱턴DC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인단 선거는 538명의 선거인이 출신주의 주도과 워싱턴DC에 모여 유권자들이 일반투표로 지지한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지난달 8일 선거에서 306명의 선거인을 확보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32명에 그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차기 대통령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주 선거인단은 이날, 주 선거 결과에 담긴 ‘결과 확인증’을 토대로 비밀투표를 하며, 그 결과를 담은 증명서 등을 봉합해 연방 상원의장에게 발송한다. 상원의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은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봉합 서류를 개봉한 후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거인단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일반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반선거에서 당선된 트럼프(46.2%)보다 클린턴(48.3%)의 득표율이 2.1%포인트나 앞서고, 특히 표차가 역대 최다인 283만 표에 달해 종전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선거 부정 가능성으로 인해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3개 주에서 재검표 논란까지 있었던 터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에 필요한 270명보다 무려 36명이나 많은 선거인을 확보하고 있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의 ‘배신 투표’ 독려에 따라 이탈표, 이른바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 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숫자가 클린턴의 당선에 필요한 38명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선거인은 주별 일반선거 결과에 따라 배

정되며, 당원 중에서 뽑히기 때문에 다른 당의 후보를 찍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거인단이 반란표를 행사하거나 투표용지에 정해진 후보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는 ‘1% 미만’으로 집계됐다. 만약 선거인단 선거에서 과반인 270명 이상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연방하원 비밀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 경우 연방하원은 일반유권자 득표 순위 3위까지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는데, 현재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고, 주별로 1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연합뉴스

푸틴 팬 영국 극우주의자

트럼프 편향 웹사이트 운영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팬인 영국의 극우주의자가 웹사이트를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제임스 다우슨이 ‘패트리아트 뉴스 에이전시’(Patriot News Agency)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나쁜 이야기를 만들어 올리는 한편 트럼프에게는 유리한 내용을 게재했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웹사이트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옹호했던 다우슨이 영국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우슨은 러시아에서 열린 극우지도자 모임에서 연설하기도 했으며, 트럼프와 푸틴이 화해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불타는 시리아 반군 철수 버스

바람에 협상이 중단되고 버스에 몸을 실은 주민들이 수 시간 동안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주민들을 실어 나르던 버스에 불이 붙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북부 격전지 알레포에서 주민과 반군의 철수 협상에 18일(현지시간) 합의한 가운데, 한때 무장 괴한들이 이德利브주 인근에서 철수용 버스 5대를 불태우는

않았다고 밝혔으나, 브라질 위원장은 9월 이후에도 러시아의 해킹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클린턴 측은 “러시아의 개입으로 대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는 이날 NBC방송 ‘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이번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가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이같이 대답한 후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힐러리 “러시아 개입 美 대선 왜곡”…민주당, 의회 조사 요구

미국 연방수사국(CIA) 등 정보 당국이 지난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것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민주당이 연방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도나 브라질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공격의 주요 희생자 중의 한 당사자로서 의회가

이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포함해 철두철미하고 독립적이며 초당파적인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의회에 발송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범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미국이 외세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위원장은 의회 조사는 러시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향후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해킹 중단을 요청한 이후 해킹 증거가 목격되지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㉟ 북벌 추진한 환온

환온(桓溫, 312~373)은 동진 융항 출신으로 자는 원자다. 2대 황제 명제의 사위다. 중원 회복을 위해 북벌을 추진했으며, 황위를 찬탈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병사했다. 그는 동진의 귀족가문 출신이다. 부친 환이는 문자이품의 명문으로 선성군의 태수를 지냈다. 열다섯에 부친을 잃었다. 소준이 일으킨 반란 때 소준의 부하인 한황에게 살해된 것이다.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에 기회를 노린 중 부친을 살해한 일당 중 한명인 강파가 죽자 장례식장에 뛰어들어가 일족을 죽였다. 18세 때의 일이다. 용모가 준수해 명제의 딸인 남강공주의 남편이 되었다. 부마도위와 낭야태수를 지냈다. 목제 영화 초에 형주자사가 되었다. 전략의 요충지인 형주의 군정대권을 장악함으로써 양자강

다. 백성들이 다투어 쇠고기와 술을 가지고 와서 환영했다. 60, 70세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 와서 다시 관군을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서진의 수도 낙양을 일시 수복한 후 평승투에 올라 중원 땅을 바라보며 “마침내 낙양 지방을 외적에 넘겨주어 백년간이나 옛땅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왕연 등 여러 고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감회에 젖었다고 세실신서에 기록되어 있다. 369년 세 번째의 북벌을 단행해 5만 군사를 거느리고 전연을 공격했다. 그런데 군량을 수로로 운반토록 했는데 전연군이 석문 나루터를 점령하고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식량난에 부딪친 환온군은 부득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퇴각 중에 전연의 모용수에게 기습을 당해 군사 대반을 잃어버렸다. 이후 서주와 연주의 백성들을 징발해

황위 찬탈 실패한 동진시대 권신

중류의 교역과 수도에 식량을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형주자사는 당초 실력자 유량의 손자인 유원리에게 승계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미성년자의 신분이었다. 중신 하충은 환온을 기용할 것을 상소했다. “형주는 나라의 서문으로 호구는 백만이다. 인재를 얻으면 중원으로 성할 수 있고, 인재를 잃으면 사직이 우려된다. 어찌 백면의 소년에게 그 임무를 맡길 수 있느냐. 환온은 영락이 출중하고 문무의 재주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런 연유로 345년 형주자사에 임명되었다. 346년 서쪽의 촉 지방을 공략해 성한을 멸망시켰다. 공으로 정서대장군으로 승진했고 임하군공으로 책봉되었다. 그를 견제하기 위해 양주자사 은호를 불러 황제 측근에서 보좌케 했다. 이로 인해 환온과 은호가 서로 의심해 갈라졌다. 351년 북벌에 관한 표문을 올리고 병력 5만명을 동원해 무창에 주둔했다. 회계왕 사마욱이 표지를 보내 회군할 것을 요청하니 사죄하고 자신의 군영으로 회군했다. 354년 본격적인 북벌을 개시했다. 양주자사 은호가 여러번 북벌에 나서 패해 군량과 병기를 소진했다. 은호는 면직되 서인이 되었다. 이로부터 내외의 대권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4만의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를 정벌해 패상에 이르니 군현이 모두 와서 항복했

광주성을 축성하고 군대를 이동해 그곳에 진주했다. 전쟁이 빈번히 일어났고 전열병이 장궤해 죽은자가 열에 4, 5가 되었다. 계속된 북벌의 실패로 명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8주의 군사권을 장악한 그의 권세는 여전했다. 2년 후 무능하다는 이유로 황제 사마력을 폐립했다. 회계왕 사마욱이 즉위했다. 간문제로 불리웠는데 1년만에 죽어버렸다. 간문제로부터 양위 받아 제위에 오를 계획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였다. 간문제는 “황태자를 도울 수 있으면 이를 도와주고 도울 수 없으면 당신이 이를 취하십시오”라는 유언을 작성했다. 시중 왕탄자가 이를 찢어버리고 “전하는 선제 사마의, 원제 사마의의 천하요, 폐하는 어찌 이것을 폐하 혼자 제멋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대했다. 결국 유조는 “내정의 일은 첫째로 환온에게 맡기되 제갈무후와 왕승상과 같이 하시오”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환온의 찬탈이 제지되었다. 사마요가 즉위해 효무제가 되었고 그는 보정대신에 임명되었다. 선제의 능묘에 참배한 연후 병상에 누워 회복되지 못했다. 북벌의 주역인 환온도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62세로 생을 마감했다.

급, 싸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남평, 최고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에서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80만원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지하1층 지상4층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61개
- 법인체 인수 가능
- 동업 운영 하실분 환영
- 리모델링 중 (4억예상)
- 매매 - 협의
- 대출 - 8억 있음
- 감정가 - 현재 15억
- 주인직매 H.010-3605-5000